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국민 권익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3 03+04 vol.3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110 국민콜

정부대표민원전화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트위터 110 callcenter 페이스북 110 call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CONTENTS

3+4 vol.31

기획특집

- 04 커버 스토리 '국민권의 보호, 신뢰받는 정부' 희망찬 미래 만들기
- 08 포커스 공익침해행위, 이제 마음 놓고 신고하세요
- 12 국민권이 만난 사람 의로웠지만 보호받지 못한 공익신고자 강신현 씨

희망 전하기

- 14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제1회 '국민권의 날' 기념식 개최
- 18 세대공감 소통 응답하라! 397세대
- 20 SNS Talk Talk 임금체불은 정말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어요 外
- 22 110 행복 레시피 개인회생 중인데 비용을 줄여주세요

권의 더하기

- 24 국민권이 간다 전남지역 이동신문고 현장 스케치
- 28 국민권의 Q&A 치과 의사 '미용목적 성형 시술' 의료광고는 위법 外
- 30 Global ACRC 태국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제도' 전수
- 32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 국민신문고 지난 6년간 59만 건 접수

행복 나누기

- 34 전통시장 나들이 전통의 멋진 변주를 맞보다_통인시장
- 38 이야기 목민심서 다시 읽는 '목민심서'
- 40 꼭 알아두세요!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 '스미싱'을 조심하세요!
- 42 건강 365 금연 계획 잘 지키고 있나요?
- 44 감성충전 아이와 함께 떠나는 이야기 속 여행
- 48 뉴스 & 피플 권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충해결 外
- 50 독자의 소리



2013 vol.31 3+4월호

발행일 2013년 4월 12일 (격월간, 비매품)
 발행인 이성보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전화 02. 360. 2761 팩스 02. 360. 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 디자인신화 02. 324. 6852
 표지 작가 정윤미
 인쇄 삼화인쇄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희망찬 미래 만들기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지난 4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에게 약속하는 5가지 중점정책에 대한 추진계획, 그리고 사회갈등 해결,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글 백경미

2013년 새 정부 출범 후 여러 기관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다듬어지는 정책들인 만큼 정부의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을 터. 권익위 역시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권익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금까지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 권익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왔던 권익위. 권리의식의 성장과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로 국민과 직접접촉에 있는 권익위에 대한 권익구제 수요가 올해 들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의 다각적 노력에도 부패 공직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국가청렴지수는 정체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5가지 주요정책과 사회갈등 해결,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등의 부처 간 협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1. 현장 중심 권익구제 활성화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해결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표 고충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 개별 ‘민원카드화’하여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확대한다. 반북·고질민원 등은 특별민원팀을 운영하여 끝까지 해결하며, 누구나 손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 국민행복 제안센터 운영

생활 속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약자, 일반 서민, 중소기업 등을 위해 권익위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한다. 민생 관련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거나 전자공공토론을 시행한다. 또한 주부, 학생,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의 만족도 평가도 실시한다. 국민행복 제안센터는 5월에 문을 열며, 7월부터 국민행복모니터링단을 통한 정책 피드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을 통한 정책소통

국민신문고·110(정부민원콜)을 통해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의 방향이나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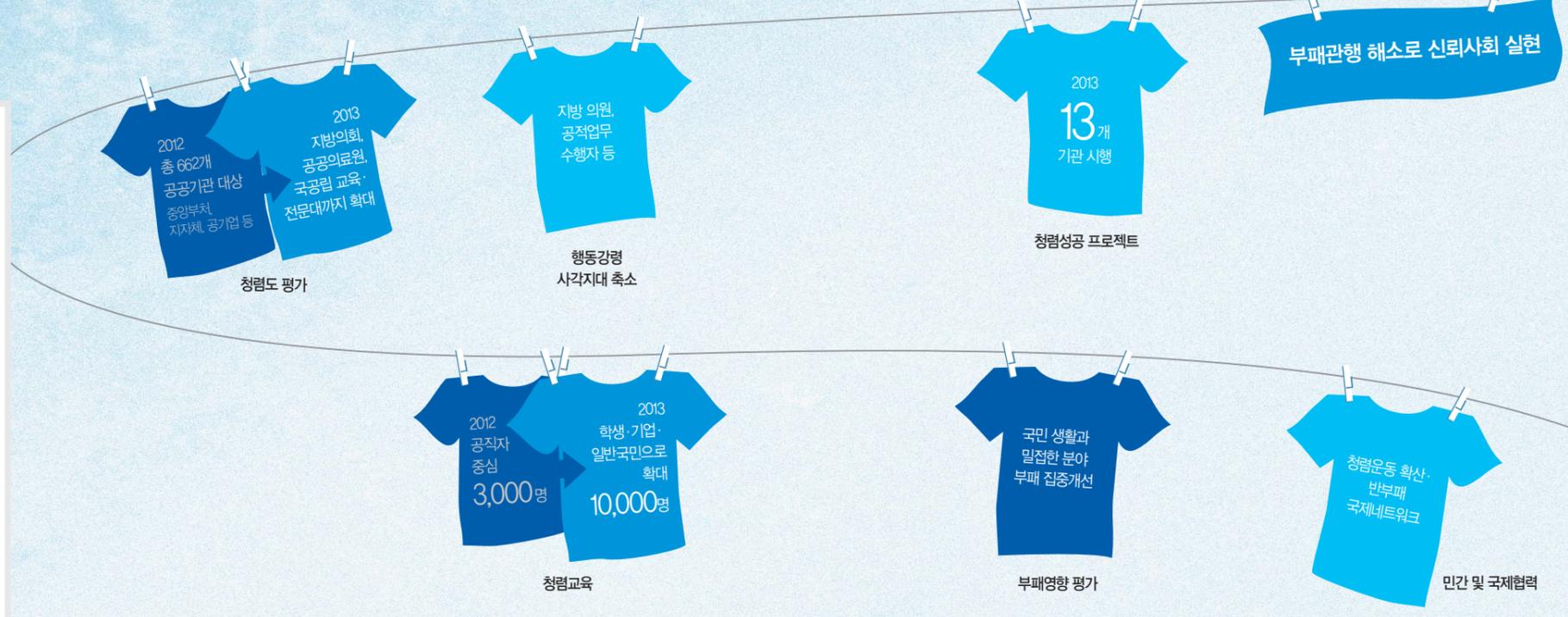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등을 통한 정책 소통을 활성화한다. 국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시간·쌍방향 토론의 장을 운영, 이를 통해 고충·불만 민원, 부패사례, 국민제안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개선을 제안한다. 또한, 인터넷 화상, SNS 및 수화상담, 시각 장애인 점자 서비스 등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선시급한 민생직결 분야 개선

정부, 공공기관, 공무수행 민간분야의 잘못된 관행, 법·제도 개선

- 생활안심 분야**
 - 아동 및 시설 안전
 - 자동차, 식품 등 리콜제도 개선
- 소외계층 보호**
 - 사회복지급여 전달체계
 - 불법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 미래성장 지원**
 - 과도한 입학전형료
 - 유사중복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 생활안전·취약계층 분야 제도개선**
- 민생부조리**
 - 위탁사무비용 부담중수
 - 재외국민 특별전형 악용 등
- 관리감독사각지대**
 - 관행적 행정정보공개 거부
 - 예산 외 수익금 방만집행 등
- 민간위탁 분야**
 - 공무수행 민간인 뇌물수수
 - 자격사 비리통제 미흡 등
- 국민행복·정부신뢰 저해 요소 제거**



4. 부패관행 근절로 신뢰사회 실현

부패관행을 해소하여 1%의 부패도 발생하지 않는 신뢰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및 범국민적인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12년 설립된 청렴연수원을 발전시켜 공직자 외에 학생, 기업, 일반국민, 외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확대(연 3천명→연 1만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662개) 위주의 청렴도 평가를 개편하여 지방의회, 공공의료원, 국공립대학 등 112개 취약분야를 대상에 추가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등 조사방법 보완으로 청렴도 평가 제도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5.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행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안전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개선이 시급한 분야와 민생에 직결되는 분야의 문제점이 그 대상.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패널의 심층토론과 국민의 의견 반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여 주부, 회사원, 학생 등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실생활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공무수행 민간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및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는 국정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보호 기반을 구축하였지만, 학교급식,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같은 국민생활과 공익에 직결되는 일부 법률은 아직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권익위는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홍보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깨끗한 정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제정한다. 우리 사회의 알선·청탁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 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이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안을 마련,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의 방향이나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아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잘 녹여냈다.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권익위의 다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역시 함께 소통하며 노력해야겠다.

국정과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



2013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 부정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금품수수 금지**
직무관련성, 대가성 불문, 일체의 금품수수·요구·약속 금지
-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수행 및 전관예우 금지 등

공익침해행위, 이제 마음 놓고 신고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보고도 제보를 망설이는 것은 보통사람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지 모른다. 혹시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자.

글 김희정

식품 유통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우연한 기회에 중국산 참기름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는 업체를 알게 되었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A씨는 고민 끝에 해당 회사의 불법 행위를 관련 기관에 제보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재판 중에 A씨의 신분이 신고 당한 업체에 노출되어 오히려 무고죄 및 신용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이러한 일들이 업체에 소문이 나 A씨는 상당 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노숙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A씨의 양심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손실을 막았지만 A씨는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공익신고자가 위험에 노출되던 과거에는 공익침해행위를 보더라도 누구 하나 나서서 신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한번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는 조직의 내부나 가까운 주변에서 사전에

발견하고 해당 기관에 알릴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앞서 소개한 A씨의 사례와 같이 신고자가 신분적·경제적 불이익, 나아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익신고를 통해 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A씨와 같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 안심

A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그동안 부패신고자만 보호받을 수 있었던 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민간분야의 공익신고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해주는 법으로, 예를 들어 불량식품 제조나 폐기물 불법매립, 가격담합, 불법하도급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신고자는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등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이 예상된다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이 있었다면 원상회복되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법 위반에 개입한 자진신고자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호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신고·조사과정에서의 협조자에게도 폭넓게 적용된다.

공익신고로 대형사고 막는다

공익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공익침해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는 인명피해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밝혀내 대형 사고를 막은 예가 대표적이다. K씨는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수중의 부실시공을 제보했다. 철도 교량 하부보강공사 시 강바닥이 유수로 깎이는 세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보호공사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던 K씨가 그 사실을 제보했고 그 후 보완시공이 이뤄졌다. 신고가 없었더라면 교량 붕괴로까지 이어져 수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었던 일이었다.

이밖에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중인 식품회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여전히 해당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를 통해 밝혀낸 사례도 있었다.

책임감면·보호조치 등 공익신고자를 위한 배려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면에서 공익신고 자체도 중요하지만, 신고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없었다면 애초에 신고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가 된 충주 소각장 사례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주소각장의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사측의 요구에 따라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을 조작했다고 자진신고했다. 이들은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염화수소 배출량을 범죄 행위인 줄 알면서도 상사들의 지시로 조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실제로 충주소각장에서 지난 1년여 간 40차례에 걸쳐 배출 오염 농도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없었다면 이 직원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자진신고자의 경우 그 책임을 감면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신고자들은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수사기관에서 범죄 행위 감경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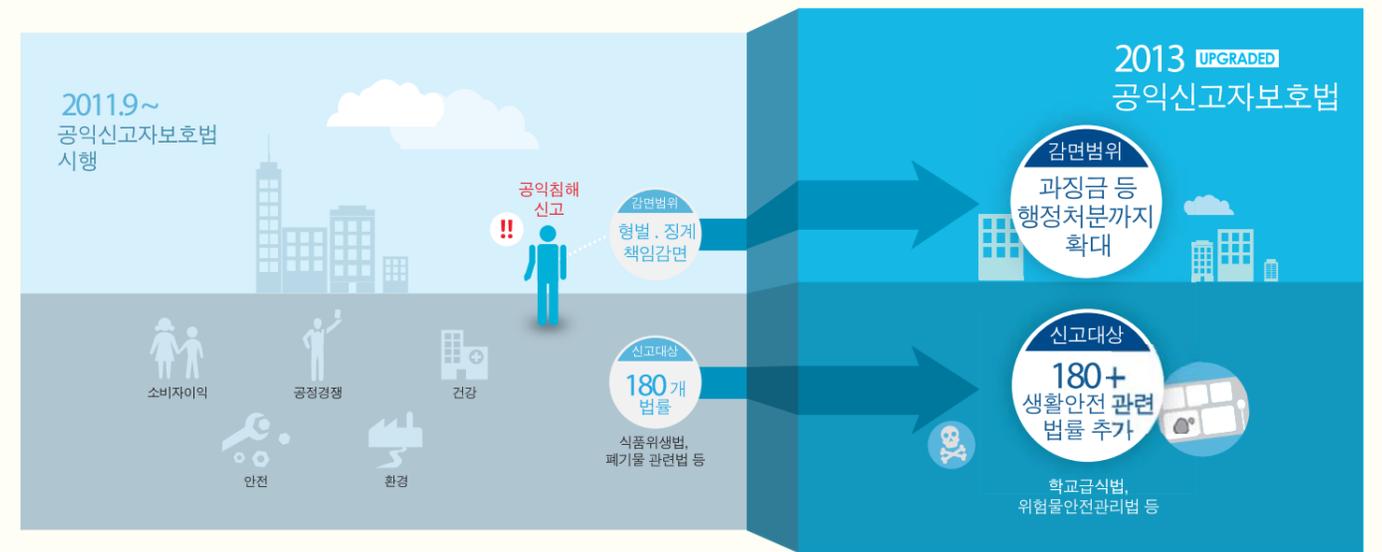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내려진 첫 보호조치 역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열차 부품 파손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 2명이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해임과 3개월 정직처분을 받게 된 사건이었다. 이 직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징계 취소와 복직이 이루어졌다.

공익침해행위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2012년 말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1,434건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표시 위반 같은 민생침해 사건들부터 가격담합, 하도급비리 같은 기업 관련 불법행위까지 다양한 내용이 접수되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5건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공익침해가 사실로 드러나 이루어진 수입증대, 불법이득 환수와 과징금부과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32건에 대하여 28백여만 원이 지급되었다.

현재에는 민간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 관련 위반행위들에 대한 공익신고자의 보호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권익위는 앞으로 학교급식, 위험물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법률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관련한 법률 위반신고까지 보호할 예정이다. 여기에 법 위반에 개입한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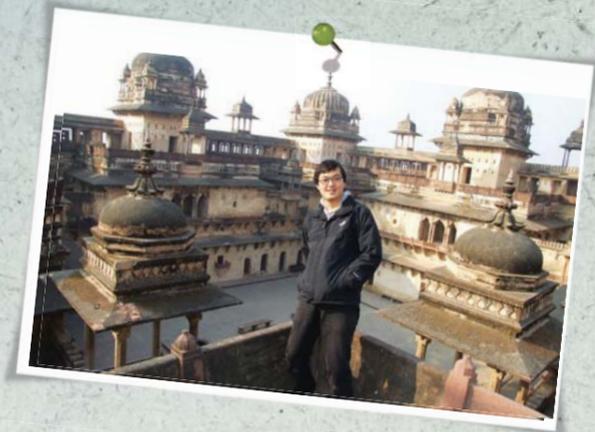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예방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기업을 포함해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노력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누구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우리 주변의 잘못된 문제를 제기하고 해소할 수 있다면,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신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440일 동안 군 복무를 더 하라니요!

의로웠지만 보호받지 못한 공익신고자 강신현 씨

글 박영화



정전기 제거장치를 생산·판매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업체. 27살 강신현 씨는 병무청이 지정한 이곳에서 2011년 1월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방사선으로 정전기를 없애는 제품의 성능검사일을 맡은 뒤부터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업하고 나면 피부가 붉게 올라온다거나 간지러움이 느껴졌고, 두통도 계속됐다. “같이 일했던 동료는 근무하다가 갑자기 코피를 쏟고 너무 어지러워서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어요.”

강신현 씨는 업체가 정부의 승인도 없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했고 방사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에게 보호장비도 없이 방사선작업을 시킨 점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산지방 동부고용노동지청’, ‘부산지방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업체의 상황을 고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조사한 결과 강신현 씨의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기있는 신고가 강신현 씨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조사하기도 전에 그의 신고사실이 업체에 알려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신고자는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병무청으로부터 1년 3개월(440일)을 더 복무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생산분야에서 일해야 대체복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강신현 씨가 기획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것. 회사의 조치로 인해 입사 초기에 기획분야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생산분야에서 일했지만, 병무청의 입장은 강경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신고와 관련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병무청의 조치는 행정처분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책임감면 대상인 형벌·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 강신현 씨는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경쟁, 소비자이익 등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를 내부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에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은 만들어졌지만, 강신현 씨와 같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강신현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는 저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가 없어야겠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해져서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전하기

14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18

세대공감 소통

응답하라! 397세대

20

SNS Talk Talk

임금체불은 정말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어요. 外

22

110 행복 레시피

개인회생 중인데 비용을 줄여주세요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국민의 행복,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역사적으로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을 '국민권익의 날'로 제정했으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리도 가졌다. 글 백경미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의 날' 제정 기념식과 함께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날을 '국민권익의 날'로 제정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밝힌다"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순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는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 5회째 맞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훈장 4명, 포장 6명 등 13개 단체와 101명 개인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익명의 부패행위 제보자 A씨는 2011년 8월경 울산의 한 금융기관 주차장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뇌물로 의심되는 거액의 현금을 음료수 박스에 포장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를 울산지검에 제보한 사람이다. A씨의 신고로 원자력발전소 자재 납품과 관련해 일선 발전소 현장직원부터 한수원 본사 간부에 이르기까지 편의제공 및 입찰담합종용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서 총 53명이 사범 처리됐다.



지난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에 열린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13개 단체와 101명 개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당시 A씨의 제보를 받았던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김원진 수사관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수사관은 현금을 포함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에도 끈질긴 추적과 노력 끝에 원자력발전소 자재 납품과 관련한 고질적인 유착 비리를 밝혀내고, 비리관계자 50여 명을 검거했다.

민원업무분야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정읍시 도시과장 한양수 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 시민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 공무원이다.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정읍시민들과 약속한 호남고속철 정읍역사 신축과 지하차도 신설을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주민들이 철도 시설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민 7만 3천여 명의 집단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되었다. 이때 한양수 과장의 활약으로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언론계 인사로는 SBS 조기호 기자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작년 11월 검찰 고위간부가 대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수뢰하고 수사에 개입했다는 특종을 보도했다. 당사자인 부장검사 구속, 검찰총장 사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성보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이들 수상자 덕분에 우리나라가 ‘국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며 “권익위도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국민권익의 날 행사에서 국민권익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는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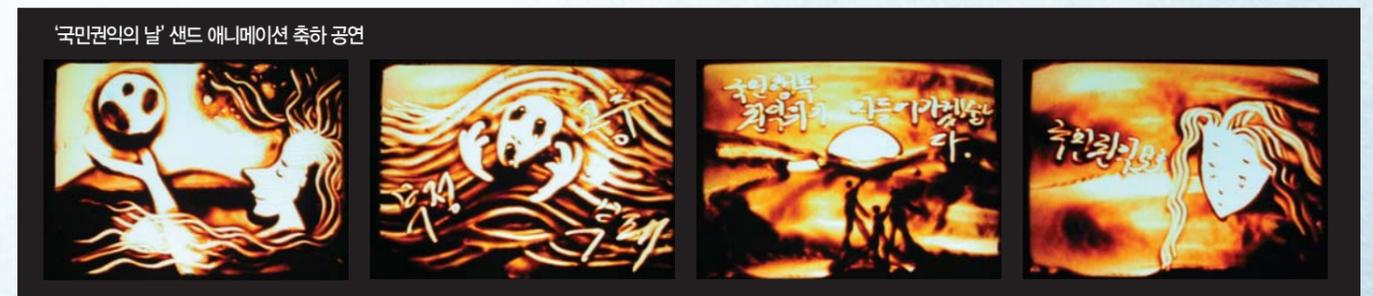
정책소통을 통한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소와 국민권익의 수호에 앞장서고, 부패방지 역할을 강화해 정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이 끝난 이후 병무청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병무청은 ‘부패방지시책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전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등 부단한 노력으로 병무청 직원이 관련된 병역비리가 1999년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렴병무청 10주년」을 달성했다. 이날 병무청은 사례 발표에서 구조적 혁신과 캠페인 전개를 통한 노력을 소개하며 “오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계속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병무청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권익 증진을 위하여

권익위가 출범한 지 벌써 5년째이다. 그동안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보호 수단을 통합 운영하여 높아진 권익보호 수요에 적극 대응했을 뿐 아니라 ‘찾아가는 고충해결’과 ‘실천중심의 청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권익정책 실현기반을 마련해왔다.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 125만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178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민원 해결 서비스인 이동신문고를 운영해왔다. 또한, 662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등 반부패 정책을 통해 신뢰정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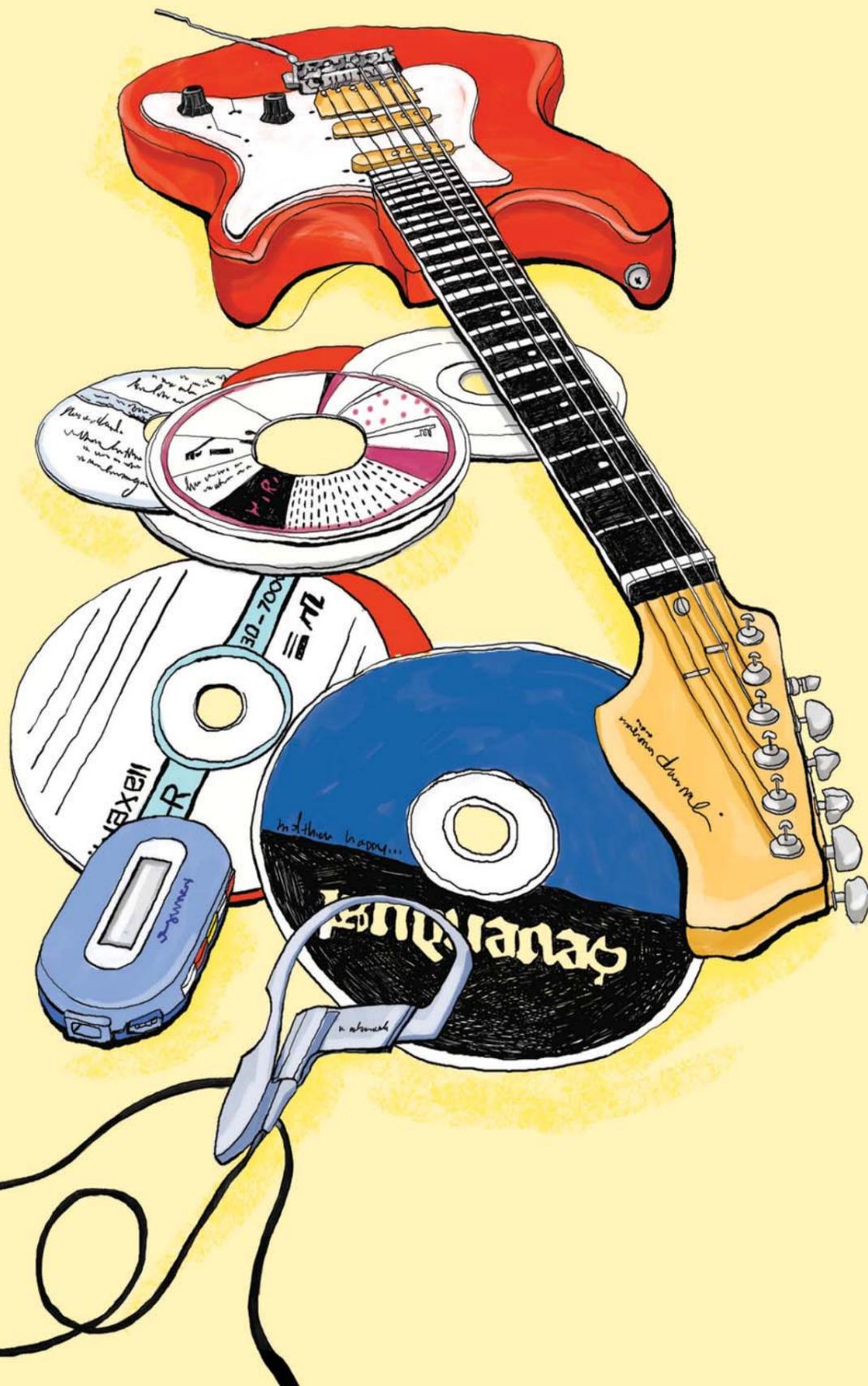
이날 마지막 순서였던 ‘국민권익의 날’ 샌드 애니메이션 축하 공연은 이러한 권익위의 상징성을 적절하게 표현했다. 고통에 휩싸인 국민과 이를 희망으로 이끌어내는 권익위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앞으로도 ‘국민권익의 날’이 국민과 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 인정받는 기쁜 날이 되길, 권익위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항상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소통의 기관이 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 바란다.



응답하라! 397세대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39살 김승민(가명) 씨는 요즘 학창시절 즐겨 들었던 CD를 다시 꺼내서 듣고 있다. 화려한 군무와 매력적인 멜로디로 유혹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음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이들의 노래에 도무지 정이 가질 않는 이유다. 사실 아이돌 가수들의 비슷한 외모 때문인지 누가 누군지도 구별하기 어렵다. “그때 노래가 좋았지!” 마음 둘 곳 없던 김승민 씨는 묵혀두었던 CD를 다시 꺼내 들으며 감성을 충전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때 그 노래가 나오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시대 직장인 김승민 씨가 추천하는 추억의 장소는 어디일까.

글 박영화



복고의 중심, 397세대를 아시나요?

대한민국은 지금 복고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자꾸만 빨라지는데, 이상하게 문화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 하지만 복고라고 해서 다 같은 복고가 아니다. 과거에는 포크송, 디스코 등으로 대표되는 ‘386세대’가 복고를 이끌었다면 지금 복고의 중심은 ‘397세대’다. 397세대란 1970년대 출생, 1990년대 학번, 30대를 지칭하는 말. 이들은 회사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중심 소비자 역할을 한다.

397세대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문화 콘텐츠는 부족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397세대의 추억을 담은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되더니 이제는 홍대, 강남, 종로 등 주요 변화가에 그들을 위한 장소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첨단 유행 상권의 대표주자인 서울 홍대 앞 ‘밤과 음악사이’를 필두로 ‘아이러브케이팝’, ‘16m’, ‘라디오스타’, ‘남녀공학’ 등 1990년대를 컨셉트로 한 음악주점이 등장했고, 397세대들이 공감할 만한 추억의 소품과 추억의 도시락을 선보이는 카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1990년대의 감성을 이제 다양한 곳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후에 '밤과 음악사이'
금요일 밤 10시, 젊은이의 거리로 대표되는 홍대 골목에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가득하다. '밤과 음악사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기표를 받고 기다릴 정도다. '밤사'라는 줄임말로 통하는 '밤과 음악사이'는 1980~90년대 추억의 가요만 흘러나오는 음악 클럽이다. '밤사'의 분위기가 좋다고 모두 입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30·40대를 위한 맞춤형 장소기 때문에 1989년 이후 출생자는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홍대 1호점에서 시작한 밤과 음악사이는 30·40대의 열렬한 지지 속에 현재 전국 19개의 매장이 운영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회식이나 동창모임 장소를 정해야 한다면, 30·40대의 소통 공간인 '밤사'를 추천한다.



DJ가 있는 음악다방 치킨집 'DJ 봉달이'
'DJ 봉달이'는 1980년대 음악다방을 재현한 치킨집이다. 복고음악다방이라는 컨셉에 맞게 책상과 걸상으로 교실 같은 분위기를 냈으며, 그 시절의 다방처럼 DJ가 신곡과 사연을 소개하는데, 주로 1990년대 가요와 팝송이다. 이곳의 대표메뉴는 옛날 전통식 물반죽으로 튀긴 추억의 옛날치킨. 치킨의 맛도 좋지만, 치킨을 담아내는 용기가 특별하다. 치킨은 군대 반함통에, 서비스로 내주는 추억의 과거 별뽕배이는 반함 뚜껑에 담아낸다. 맛있는 치킨을 독특한 분위기에서 즐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영등포 'DJ 봉달이'로!



추억의 도시락부터 불량식품까지, '별다방 미스리'
상호부터 복고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별다방 미스리'는 추억이 있는 복고 컨셉트의 카페다. 1990년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와 소품들로 아가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주메뉴는 전통차와 한과인데 특히 달걀과 김, 볶음김치, 소시지가 담긴 추억의 도시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장 한쪽에는 추억의 뽑기 코너와 불량식품코너가 마련되어 중년층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물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오가는 SNS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제 청주에 있는 청렴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개원한 지 불과 2개월 남짓해 아직 인원이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머지 않아 우리 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허브이자 세계적인 종합적 전문교육센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마르지 않는 '청렴의 샘'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성보 @sb56acrc (1월 15일)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렴의 샘'이 되는 대한민국이 곧 다가오길 기대하며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국민권익위원회 파이팅입니다. *^^* (나팔천사)



봄봄봄~ 봄이 왔어요! 하루하루 성큼 다가온 봄 날씨를 느끼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오면 외출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막상 문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준비했어요. 재! 봄꽃 여행 출발해볼까요? 부웅~! (3월 28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472>

다음 달부터는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겠군요~ ㄷ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데... ㄷ (전성현)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말에 진심으로 귀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는 고민 중 하난데요,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데,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 주는 그런 곳은 없을까요? (3월 25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460>

억울하게 당하는 일 많지요... 첫째는 어느 곳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고 둘째 말해야 해결도 안되고... 그동안 세상이 너무 썩었어.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을 대변 하는 그날이 언제인지? (doam2001)



언젠가

힘든 일이 생긴다면 꼭 전화해볼게요. ^^ (hwanimini)



국민신문고가 본격 운영을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총 591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가장 많았던 민원은 고용·임금 민원이었어요. (3월 25일)

임금체불은

정말 체벌을 강화하면 좋겠어요. 예상이 되면 더 좋고요. (김성희)



권익위에 부패를 신고한 신고자 13명이 총 3억 1천여만 원의 신고 보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번에 권익위가 보상을 지급하기로 한 신고 13건 중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3월 19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451>



부패 신고 해야 겠어요~~ (절대동사)

정부보조금은 국민이 번 파는 세금입니다. 국민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지키고 국가를 위한 사람입니다. (이석진)



소셜미디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친구가 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다음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모바일 응료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이 소개된 분들은 이메일(mbr@korea.kr)로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facebook



<https://www.facebook.com/loveacrc>

twitter



<https://twitter.com/loveacrc>

me2DAY



<http://me2day.net/loveacrc>

YOZM



<http://yozm.daum.net/acrc0229>

Daum



<http://blog.daum.net/loveacrc>

개인회생 중인데 비용을 줄여주세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을 썼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어요. 어쩌면 좋죠."

어느 날 110 콜센터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아주 지친 목소리였다. 민원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를 포함해 네 명이 보증을 썼는데 두 명은 재산이 없고 저만 재산이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해 돈을 갚고 있어요. 나머지 한 명은 재산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고요."

민원인은 보증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해 2년 동안이나 갚고 있는 것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 갚아도 금액은 줄어드는 것 같지 않고, 더욱이 보증채무의 이자를 다른 사람과 같이 갚아야 하는데도 민원인 혼자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하루 억울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연히 110번 번호를 보게 되었고 혹시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전화를 건 것이었다.

보증채무로 인해 생활이 엉망이 된 것도 화가 날 텐데 다른 사람의 채무까지 같이 갚아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일지 나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다.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세한 내용을 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덕분에 상담 잘 받았습니니다.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을 하면 개인회생 중에 납부하는 금액을 조금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방법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처음 전화를 걸어왔을 때보다 한결 밝은 목소리였다.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니 가슴속에서 따듯한 기운이 올라왔다.

삶을 살다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난관에 부딪치는 일도 종종 있는 것 같다. 민원인도 좋은 취지로 보증을 썼을 뿐인데 생각한 방향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들었을 것이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거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숨통을 틔어 줄 수 있는 110번의 상담사라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남은 2013년도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상담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다짐을 해본다.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 민원에 대한 모든 궁금하고 불편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대표민원전화 서비스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한 상담원의 상담 내용을 소개합니다.




권익 더하기

24

국민권익이 간다

전남지역 이동신문고 현장 스케치

28

국민권익 Q&A

치과의사 '미용목적 성형 시술' 의료광고는 위법 외

30

Global ACRC

태국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제도' 전수

32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

국민신문고 지난 6년간 591만 건 접수



이동신문고 덕분에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전남지역 이동신문고 현장 스케치

남원시 교룡산성 연결도로 설치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지난 3월 20일 남원시청. 이날 이곳에서 남원시민과 한국도로공사, 남원시청 관계자들이 모여 남원시민이 제기한 고층민원 해결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도 책임을 미루던 관계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한결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 이동신문고는 앞으로도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전국 현장을 누빌 예정이다.

글 김희정

지난 3월, 전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가 열렸다. 19일 여수시청, 20일 순천시청, 21일 광양시청에 이어 22일 구례군청에서 고층민원상담이 진행된 것. 지역 주민들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의 상담 조사관들을 만나 고층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해소할 수 있었다.

여수, 순천, 광양, 구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곡성, 화순, 남원 등의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해 고층민원 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층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했다.

이동신문고는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한 후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권익위 상담 조사관들이 전남 순천을 찾아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고 있다.

남원시민의 30년 숙원 이뤄져

20일 순천시 이동신문고에서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참여해 집단민원을 상담했다. 이어 이성보 위원장은 인근 남원지역의 '교통산 연결통로 설치' 관련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남원시의 민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약 30년 전 88고속도로가 생기며 전북 남원시 소재 교통산 정상과 만복사지에 이르는 교통산성 능선이 지금까지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남원시민들은 그동안 88고속도로 주변의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8년에 이 구간의 도로 확장공사가 착공되었고 교통산성 연결통로 설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

지리산 끝자락에 위치한 교통산은 남원의 영산으로, 1973년 전북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교통산성과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한문소설집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만복사저포기'의 배경인 만복사 등의 문화유산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1984년 개설된 88고속도로 때문에 지맥이 단절된 상태다. 진작부터 연결통로 설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남원시민들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연결통로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예산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서로 미루고 있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원시민들은 교통산성 능선 연결 및 교통산의 역사·문화·생태적 환경 복원을 위해 '교통산성 연결통로 설치' 서명운동을 벌여 약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난 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지난 12월 남원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올해 2월까지 자료수집·검토와 수차례 현장조



교통산성 연결통로 설치가 해결되자 남원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왔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 남원시청에서 남원시민, 한국도로공사, 남원시가 참여하는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8월까지 총사업비 변경이 승인되면 연결통로 구조물을 시공하기로 했으며, 남원시는 자체 예산으로 구조물 상부 안전시설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중재로 30여 년간 단절된 교통산성 능선이 복원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성보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지난 30여 년간 남원시민의 숙원이었던 교통산의 역사·문화·생태적 환경이 복원되고, 그 동안의 정서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본 민원을 담당했던 교통도로민원과 양용석 조사관은 "과거에는 개발 속에 역사·문화·생태적 환경이 희생되는 일이 많았지만 남원시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는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 결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이동신문고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창구다. 지난해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631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해 처리했고, 그 중 약 20%를 웃도는 332건의 민원이 현장에서 합의 해결되었다. 올해도 시·군·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6개 지역, 외국인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4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원시민들의 30년 숙원이 현장에서 해결된 것처럼 더욱 많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동신문고는 국민의 결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남원시청에서 열린 조정회의를 통해 교통산성 능선 연결통로 설치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3년 이동신문고 연간 운영계획

월별	권역	운영 지역
1월	충남	보령시(23), 서산시(24), 태안군(25)
2월	부산·울산	울산 울주군(20)·남구(21), 부산 기장군(22)
3월	전남	순천시(19), 여수시(20), 광양시(21), 구례군(22)
4월	경북	봉화군(24), 안동시(25), 의성군(26)
5월	경기	양평군(22), 남양주시(23), 양주시(24)
6월	경남	의령군(19), 진주시(20), 거창군(21)
7월	충북	청주시(17), 증평군(18), 제천시(19)
8월	-	미실시(하계휴가, 을지연습)
9월	전남	신안군(24), 진도군(25), 강진군(26), 완도군(27)
10월	경북	영양군(22), 청송군(23), 영덕군(24), 울진군(25)
11월	전북	순창군(20), 남원시(21), 장수군(22)
12월	강원	춘천시(18), 횡성군(19), 원주시(20)
'14.1월	충남	논산시(22), 계룡시(23), 금산군(24)

※ ()는 날짜,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예정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국민권익 Q&A]에서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 내용 등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으로 코를 높이고 이마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필러 등을 사용하는 광고를 내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의 시술광고 내용으로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치과에서 성형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 나머지 24건은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다만, 치료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치과 예약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치과에서 코와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준다는 광고를 하고 있네요. 치과에서 왜 성형시술을 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광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려는데 운전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에 근무했던 택시회사의 임금대장을 요구하네요. 그런데 임금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동료들의 임금대장, 당시 임금협정서 등을 제출했는데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비록 임금대장은 없더라도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서상 과거 택시회사에서 근무했고, 당시의 임금협정서, 근무대장이 남아있는 다른 동료의 근무경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거 택시회사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했다고 보여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대장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더라도 여러 관련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면 근무경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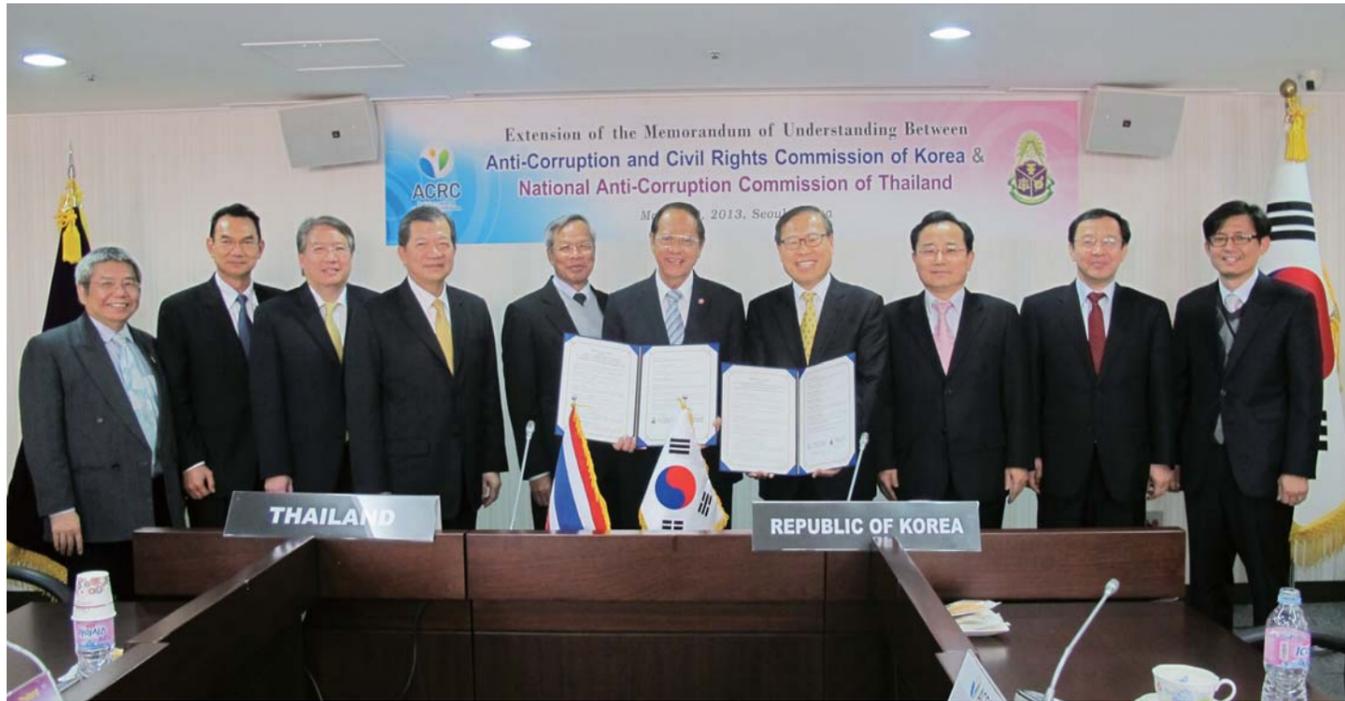


결론부터 말하자면 표준지 인근의 개별토지 소유자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다룰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가격을 기초로 산정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루는 소송에서는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룰 수 없다는 과거 판례를 볼 때 개별토지 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할 실질적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이 같은 각하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촌이나 산지의 경우 토지특성의 차이가 거의 없어 표준지 가격이 그대로 개별토지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는데요,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 개별토지 소유자의 비교표준지 가격 불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같은 해 3월 강원도에 소재한 제 소유 토지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개별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와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룰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저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태국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제도' 전수

한-태 반부패 협력에 관한 MOU 3년 연장

지난 3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태국 반부패 협력 MOU 3년 연장식이 열렸다. 이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 청렴정책인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태국에 전수될 예정이다.

글 김희정

권익위는 대표적인 청렴정책인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제도'를 태국에 도입시킨다. 지난 2002년부터 인도네시아, 부탄, 몽골에 전수한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제도는 각급 공공기관의 주요 민원인과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기관의 청렴도를 점수로 측정하는 제도

다. 평가대상인 기관들은 이 제도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효과적으로 파악해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부탄,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도 이미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난해 6월에는 유엔공공행정대상 부패방지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태 반부패 협력사업의 성과

2009년부터 시작한 한-태 반부패 협력사업은 체계적·지속적인 협력과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방콕, 3월에는 서울에서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및 법무부 등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도측정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2011년 초에는 태국 각료회의에서 청렴도측정을 포함한 '정부조달 부패예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통합평가 계획'을 승인했으며, 그해 5월에는 태국에서 '청렴도측정' 현지 컨설팅을 실시해 태국의 청렴도측정 시범 실시 계획 및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태국은 현재 우리가 전수한 '청렴도측정' 제도와 자체 개발한 '투명성지수를 결합한 '청렴투명성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태국상공회의소대학과 협력하여 올해 6월까지 8개 기관(중앙 및 지방정부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완료, 향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반부패 협력에 관한 MOU 연장

권익위는 2009년에 체결한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연장해 향후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제도가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미군동 소재 권익위 청사에서 MOU 연장식을 갖고,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뽀넵 플라나롱란 태국 부패방지위원장이 양 기관의 대표로 참석해 MOU 연장에 합의했다. 이번 MOU 연장은 청렴도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태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MOU 연장 합의와 동시에 청렴도평가 제도가 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20일부터 3일간 태국 부방위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경쟁력평가'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3년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청렴도평가 개선방향에 관한 정보를 태국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상호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한-태 반부패 협력사업은 2016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권익위는 태국의 '청렴투명성평가'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해 정기



뽀넵 플라나롱란 태국 부패방지위원장과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적인 정보교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반부패경쟁력평가' 제도를 태국에 추가로 전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3월 20일 '반부패경쟁력평가' 워크숍을 시작으로 2014년 4월에는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투명성평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9월에는 서울에서 제1차 한-태국 공동 청렴도평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차 한-태국 공동 청렴도평가 세미나는 이듬해인 2015년 9월에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2016년 초 방콕에서 '청렴도평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 축적한 한국의 '청렴도측정' 실시 노하우를 태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신문고 지난 6년간 591만 건 접수

고용·임금 민원 최다

591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과 국민의 제안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주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가 본격 운영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총 591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는 해마다 평균 21.9%가 증가한 수치다.

남·여 각각 상위 3가지 주요 민원 주제를 살펴보면, 남성은 고용·임금(10.3%), 군복무·보훈(7.9%), 교통사고·위반(4.7%) 관련 민원 순이고, 여성은 고용·임금(2%), 출산·보육(6.3%), 주택(3.4%) 순으로 나타났다. 남·여 모두 고용·임금 관련 민원(퇴직금, 실업급여, 체불임금 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성별·연령별 민원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대 여성은 고용·임금 민원의 비중이 35.7%로 가장 높았고, 30대 남성은 교통사고·위반 민원(도로교통법 및 신호위반 등이 2010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30대 여성에서 출산·보육 민원(어린이집, 보육료 등)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지역별 민원주제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는 고용·임금 민원(평균 8.4%)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유독 경기지역은 주택 민원(9.4%)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 나누기

34

전통시장 나들이

전통의 멋진 변주를 맛보다_통인시장

38

이야기 목민심서

다시 읽는 『목민심서』

40

꼭 알아두세요!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 '스미싱'을 조심하세요!

42

건강 365

금연 계획 잘 지키고 있나요?

44

감성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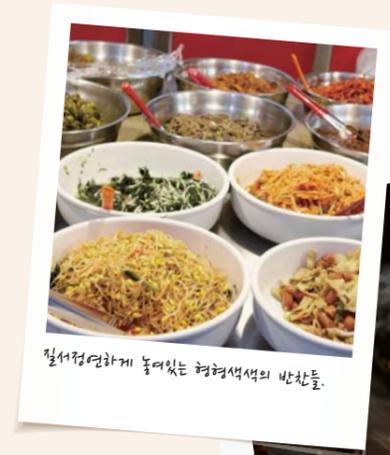
아이와 함께 떠나는 이야기 속 여행



전통의 멋진 변주를 맛보다 통인시장

통인시장은 여러모로 특별한 공간이다. 서울 종로구 통인동 10~3번지에 위치한 통인시장 주변에는 경복궁, 청와대, 수성동 계곡 등이 있다. 세 곳 모두 느긋하게 걸어도 10여 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경복궁은 말할 것도 없고, 수성동 계곡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로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겸재 정선의 그림에 등장했을 만큼 경치가 빼어난 곳. 이런 명소들 가운데 자리한 입지 덕분에, 통인시장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글 이용규 사진 김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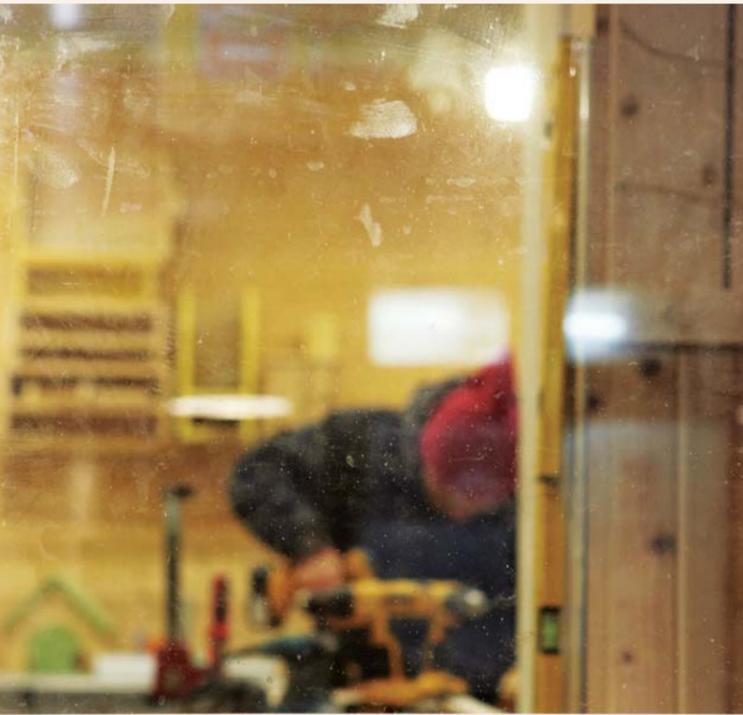


질서정연하게 놓여있는 화려색색의 반찬들.



통인시장의 명물 기름 떡볶이.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 기름에 떡볶이를 볶아낸다.





서울형문화시장사업
通仁 시장의 발견 프로젝트
070.4400.4

전통시장의 현대적 해석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인시장을 대표해 온 추억의 '기름 떡볶이'. 경북궁 동쪽에 자리한 인사동, 북촌은 양반마을로 명맥을 이어 왔지만, 다소 후락했던 경북궁 서쪽에 위치한 통인시장이 일반인에게 회자된 것은 이 기름 떡볶이의 영향이 크다. 간장으로 양념한 후 기름에 볶아내는 기름 떡볶이는 떡볶이의 원형인 궁중떡볶이와 닮아있다. 최근에는 입맛에 맞춰 고추장 기름 떡볶이도 파는데, 시대와 문화의 변화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1941년, 공설시장으로 시작한 통인시장은 6·25전쟁 이후 서촌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성장해왔다. 전체 75개 점포로, 서울시에 있는 어지간한 시장과 비교해 아담한 크기. 길 하나를 중심으로 늘어서 있어 정리정돈도 깔끔하다. 75개의 가게 가운데 식당과 반찬가게가 주를 이루고 그 뒤를 고기, 생선, 채소, 양곡 등 농축수산물 가게가 잇는다. 변화의 가능성과 힘을 응축하고 있던 통인시장은 2005년 상인회가 인정시장으로 정식 등록된 이후 빠르게 발전했다. 정부 보조금과 상인회비를 기반으로 아케이드 설치, 규격화된 간판, 깨끗하고 넓은 통로 등 현대화 시설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현대시장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전통과 새것, 예술과 장터의 절묘한 동거

2010년에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주관하는 '서울형 문화시장'으로 선정되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다. 서울예고, 추계예술대학 등의 학생들과 여러 작가가 참가해 '시장 조각 설치대회를 열고, 가게마다 개성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작품을 전시해 행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래서 통인시장을 걷다 보면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조각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다.

재래시장이었던 통인시장은 일련의 리뉴얼 과정을 통해 현대적, 예술적 감각을 지닌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체험형 공간과 고객만족센터가 마련되어 있어 통인시장을 찾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빼놓지 않는다. 또한, 고객만족센터

에는 주변 관광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 장만 보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기능까지 더하고 있다. 통인시장 내 자리 잡은 '내 맘대로 공방'에서는 아기자기한 소품과 가구를 직접 만들어보는 DIY 체험이 가능하다.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도시락

통인시장은 전통적으로 먹을거리가 강한데, 오랜 세월 통인시장을 대표했던 기름 떡볶이에 이어 지난해 새로운 메뉴가 등장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바로 '도시락 cafe 通통'이 그 주인공. '엽전'을 구입해 시장 내에 있는 카페 가맹점을 돌며 먹고 싶은 반찬을 골라 담은 뷔페식이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5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맛 좋고 푸짐한 식사를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 주머니 가벼운 청년들과 외국인 관광객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늘 많은 사람으로 넘쳐나는 남대문시장과는 규모 면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시장이지만, 통인시장에는 전통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무엇보다 넉넉한 인심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따뜻한 정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맛난 기름 떡볶이나 든든한 도시락으로 배를 채우고, 소박한 가게 하나하나를 천천히 둘러보노라면 아주 특별한 공간에 선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통인시장 가는 길

주소
서울 종로구 통인동 10-3번지

주차
시장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특정 시간대 시장 입구 주차 가능. 인근 세종마을 신교공원주차장 이용 가능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생활과 영업에 필요한 소규모 가구를 만들 수 있는 'DIY 목공방'



도시락카페 '통(通)'은 시장에서 반찬, 떡, 밥식 등을 고른 후, 카페에서 밥과 국을 구입해서 먹는 통인시장만의 특rogram.



다시 읽는 『목민심서』

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 석좌교수



『목민심서』의 역사

『목민심서(牧民心書)』 48권은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살던 다산 정약용(1762~1836)에 의해 저술되었다. 책을 지은 해는 정약용이 57세이던 1818년으로, 그해 가을에 정약용은 고향으로 해배(解配)되어 귀향한다. 수정하고 가필한 뒤인 1821년 늦은 봄에 『목민심서』 서문을 쓴 것으로 보면 그때에야 저서를 완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산은 해배 뒤, 고향에서 18년을 더 생존하며 모든 저서들을 마무리하고, 당대의 석학들과 학문적 교류를 통해 자신의 저서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500권이 넘는 저서를 간행할 날을 기다리면서 완전하게 정리해놓고 1836년 음력 2월 22일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다산의 저서는 1938년에야 『여유당전서』라는 이름으로 처음 활자로 간행되었으나 여러 기록에 의하면 다산 생존 시에 벌써 많은 책들이 필사본으로 경향각지에 퍼져 있었음을 알게 된다. 다산의 많은 저서 중에서도 유독 『목민심서』와 『흙흙심서』라는 두 책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필사되어 많은 학자들이 읽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으로 보면 최초로 『목민심서』에 대한 언급을 했던 사람은 다산의 노년기에 다산을 자주 찾아 학문을 논했던 이만용(1792~1863)이라는 사람이다. 이만용은 특히 시인으로 유명한 문사(文士)였는데 다산을 자주 찾아와 많은 시를 짓고 두물머리 일대의 경치를 구경하며 노닐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만용은 1836년 음력 2월 다산이 서거하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시(輓詩) 12수를 지었는데 그 시중에

『목민심서』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그 책을 통해 목민관의 도리를 제대로 밝혔다는 내용이 있다.

기정진(1798~1879)은 한말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로 비록 시골인 장성에서 살았지만 산림(山林)으로 발탁되어 호조참판이라는 고관에 오른 인물로, 호남·영남 일대에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며, 『노사학단』을 이룩한 학자였다. 그가 1862년 나라에서 올리라는 삼정책(三政策: 田政·軍政·還穀)의 글에서 3정의 문란으로 어지러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에 들어있으니, 임금께서 그 책을 읽어보고, 정부에서 『목민심서』 내용대로 삼정책을 펴야만 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보다는 훨씬 후배인 황현(1855~1910)에 이르면 다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고 저술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황현은 당대의 시인이고 문사였지만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아편을 먹고 자결했던 지사(志士)·시인이었는데 그의 저서 『매천야록(梅泉野錄)』은 한말의 유명한 역사책이다. “고종이 부국강병의 뜻을 강하게 지니고, 여러 개혁을 시도 하면서 신하들 중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한스러워 하였으며, 을유(1885)·병술(1886)년간에는 『여유당집(與猶堂集)』을 올리도록 명했다.(그때는 여유당전서가 간행되지 못함)… 다산의 저술은 간행된 것이 없었지만 개별적으로 베껴 써서 책에 따라 흘러 다니고 있었다. 『목민심서』와 『흙흙심서』의 경우 더욱 지방행정과 형사소송에 절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당론은 다른 가문의 사

람이라도 보배로 간직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지금 벌써 수백 본이 나돌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시절에 수백 본의 필사본이 세상에 나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목민심서』는 세상의 보배로 지방관들이 애독하는 책으로 자리 잡아 갔다.

현대의 『목민심서』

황현이 세상을 떠나고 28년, 마침내 1938년에 『여유당전서』가 간행되면서 다산의 저술은 세상에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목민심서』는 그 어떤 책보다 먼저 번역되어 공직자들의 바이블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공직자로서 『목민심서』를 읽지 않는다면, 그는 공직자일 수가 없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사회와 세상이 부패해 있고, 공직사회에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면, 『목민심서』 아니고는 세상을 정화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룩할 방법이 없다. 현대는 가장 『목민심서』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산은 본디 개혁가이자 개혁사상가였다. 세상을 통째로 바꾸고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리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면서 바꾸고 고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런 개혁의 마스터플랜이 『경세유표』라는 책이라면, 『목민심서』는 고치고 개혁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공직자들만 공정하고 청렴하면 그런대로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우리 백성들을 살려내보자”라는 목적으로 『목민심서』를 저술했노라고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었다.

목민심서는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다. 부임(赴任)·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 네 편은 원론(原論)이고 이·호·예·병·형·공(吏·戶·禮·兵·刑·工)의 육전(六典)을 각론으로 하고 부칙으로 진황(賑荒)과 해관(解官) 두 편을 넣어 도합 12편이다. 그런데 각 편에는 6개 조항으로 세분하여 모두 72조항 48권으로 이룩되어 있다.

12편 72조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산 스스로 확정해 놓았다.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을 3기(紀)로 삼았다”라고 천명하여 『목민심서』의 핵심적인 원론은 바로 그 세 편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호·예·병·형·공의 육전(六典)의 각론이야 200년 전의 행정을 오늘의 복잡 다양한 행정에서는 소화하기 어렵지만, 다산의 주장대로 삼기(三紀: 세 기강)인 율기·봉공·애민은 인간의 세상이 존

재하는 한, 불변의 통치원리이기 때문에 큰 부분으로 보면 오늘에도 절실하게 부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목민(牧民)의 본뜻

“도호들의 무단적인 행위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무서운 존재다. 그런 무서운 자들의 피해를 제거해주어 어린 양처럼 착하고 약한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牧)’이라고 말한다”라고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목’을 설명하고 있다. 권력자가 약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목’이 아니라, 목장에서 목동이 승냥이나 호랑이가 양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보살피 주는 것이 ‘목’이라고 다산은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목민’에서의 민은 누구인가. 다산이 『애민(愛民)』편에서 밝힌 대로, ‘민’은 여섯 종류의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불쌍한 백성들이다. 노인, 유아, 사궁(四窮: 환·과·고·독), 병자와 장애인, 상(喪)을 당한 사람,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 여섯 종류의 불쌍한 백성이 바로 ‘민’이었다. 그래서 다산은 그런 불쌍한 백성들을 보살피 주는 일을 ‘목민’이라 하고, 그 사람이 바로 ‘목민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목민심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목민’에서 설명된 대로 천하에 불쌍한 백성들을 보살피 주는 일이 목민인데, ‘목민’을 하고 싶은데, 즉 목민관이 되어서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살피주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싶지만, 죄인으로 귀양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 책으로라도 남겨 놓는다는 의미로 ‘심서(心書)’라고 책 이름을 지었노라고 다산은 말했다. 바로 이 책 이름 속에 다산의 비애가 담겨있고, 우리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불행이 담겨 있다.

이제 다산의 마음 속 지혜를 하나하나 빌려 오늘 우리나라 행정의 방향과 문제점을 열거해보려다. 우리 함께 다산의 마음의 지혜를 나라의 현장에서 이제라도 실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다산이 과거에 합격한 감회를 읊은 시에서 “공렴원효성(公廉願效誠)”이라 했는데, ‘공정’과 ‘청렴’으로 나라에 온 정성을 바치겠노라는 그런 정신을 공직자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뜻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휴대폰 메시지를 통한 신종사기 ‘스미싱’을 조심하세요!

스미싱을 아세요?

내 핸드폰으로 유명 외식업체의 무료쿠폰이 도착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혹시나 이벤트에 당첨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보낸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무심코 클릭 버튼을 누를지 모른다. 하지만 아차 싶을 땐 이미 늦는다. 클릭하는 순간 요금이 청구되는 신종사기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말이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사기인 스미싱(Smishing) 피해가 늘고 있다.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사후에 많은 요금이 청구되는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로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스미싱의 피해단계는 이렇다. ‘환급금을 조회하세요’, ‘00 햄버거 사용쿠폰 도착’, ‘스마트 명세서 확인하기’ 등 평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올법한 익숙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범인에게 소액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되고, 이를 이용해 범인이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한다. 결국 클릭 한 번으로 소액결제 대금청구가 스마트폰 주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수법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젊은 연령대 피해 급증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지난 1월부터 2월 25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스미싱 민원은 총 260건으로, 민원량은 아직 일반 소액결제 사기보다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 지역은 1월 초에는 주로 수도권으로 서울·경기·인천에서 140건(54.3%)이 발생했고, 2월 중순부터는 지방에서 118건(45.7%)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기존 소액결제 피해는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에서 피해가 컸던 반면, 스미싱은 휴대폰에 익숙한 세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연령대별 피해 건수를 보면 30대는 103건, 20대는 67건, 40대는 30건으로 전체 피해의 77.8%를 차지했다.

유명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가게 등의 무료쿠폰을 위장한 스마트폰 소액결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클릭만 하면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수법으로 젊은 층의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사기 수법을 이해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김희정

스미싱 예방 그리고 피해구제 방법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스미싱.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 스마트폰에서 국번 없이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 후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후 주기적 업데이트로 악성코드를 차단한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의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한다(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네 번째 방법으로는 ‘상품권’, ‘쿠폰’, ‘무료’, ‘조회’, ‘공짜’ 등 스미싱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를 미리 스팸문구로 등록해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문자메시지 ‘설정’ 클릭→스팸 메시지 설정→스팸 문구로 등록을 클릭). 이밖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서만 설치하고, 출처 불명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으며, 인터넷 상에서 apk파일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은 피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신고페이지(<http://www.ctrc.go.kr>)에 신고한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는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제출하면 원활한 피해구제절차로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고 후 구제절차를 밟도록 한다.



스미싱 피해 사례

★맥도XX★
빅버거 세트 사용쿠폰 도착!
(전지역이용가능)
<http://tiny.cc/hzvurw>

햄버거 무료쿠폰 도착 문자를 받고 무심코 클릭하였더니, 15만원이 결제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결제회사는 모두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2월)

★XXX라빈스★
행운의 12만원 무료쿠폰받기!
(전지역이용가능)
<http://goo.gl/SJCGB>

아이스크림 할인쿠폰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 보니 실행이 안 되어 그냥 삭제하였는데, 나중에 34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승인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요금을 부담하기는 억울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2013년 1월)

★피자X★
더블패밀리세트 무료교환권 도착!
(전지점이용가능)
<http://dppy.me/hzvurw>

피자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눌렀는데 에러창만 떠서 몇 번 누르다 삭제했는데, 소액결제로 5만원씩 4번에 걸쳐 2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3년 2월)

금연 계획 잘 지키고 있나요?

지긋지긋하다. 매년 계획표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금연'이라는 두 글자가, 올해도 결국 새해 금연 다짐은 죄책감과 함께 작심삼일 만에 끝나버렸다. 이것저것 변명을 꼬집어내며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자신을 옹호한다. 그만하자. 솔직히 끊는다는 말만 하는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지 않은가.

글 백경미



직장인 Y씨 역시 그랬다. 계속되는 금연 실패에 억지로 삶의 위안을 빼앗는 것도 건강에 나쁠 거라 스스로 위로하며 결국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요즘 그는 다시 금연을 생각하고 있다. 흡연자가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뭍값 인상을 적극 시행하는 등 흡연구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광장,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일반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흡연자들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규제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

다. 흡연자들에게 너무 팍팍한 세상? 하지만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OECD 회원국들의 금연정책을 담배가격과 금연장소 규제, 광고규제 기준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25개국 가운데 24위인 최하위로 조사됐다고 밝혀졌을 정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금연정책은 강하지 않았다. 남성의 흡연율이 OECD 국가 흡연율 중 2위임에도 말이다. 심지어 중고등학생 어린 친구들에게도 담배는 더 이상 불량 학생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 됐으니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흡연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이전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충분히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규제정책은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가 평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인 것이다.



백해무익한 담배, 이제 그만~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전 세계 국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그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흡연은 심혈관질환, 폐질환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의 폐해가 심각하다. 2012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0조 원으로 추정되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3만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6배나 더 많다. 또한 흡연량 역시 1인당 담배 소비량이 연간 평균 86.6갑으로 다른 나라 평균 48.4갑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이다.

이쯤 되면 담배 예찬론자를 제외하고는 '아, 백해무익한 담배 이제는 진짜 끊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뿐이지 막상 시작하려니 망설여진다. 인정한다. 금연, 살 빼기만큼이나 어렵고 고되다는 것을.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고서야는 솔직히 매번 다시 곁에 두게 된다.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 건강에 적신호가 와야 그제야 아차, 하는 것이다.

금연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 금연 중에 담배 생각이 나면 운동을 하거나, 칼로리가 높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양치를 자주 해 입속을 개운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 하지만 온종일 담배를 끼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럴 때 금연 보조제가 필요하다. 그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니코틴 패치와 금연초이다. 니코틴 패치는 가공된 니코틴이 발라져 있는 파스로 24시간 동안 효력이 있다. 금연 보조제 중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어지럽거나 메스꺼움, 불안,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담배와 비슷하게 생겨 흡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금연초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는 점. 그리고 타르 함량이 높아 이 역시 담배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피우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 번 실패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금연클리닉을 추천한다. 많은 금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담도 진행한다. 6개월 동안 금연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관리까지 해주니 의지가 부족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역시 연간 5만 명 이상 등록·관리 중인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기능을 강화하는 등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 번의 시도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세 번 네 번 도전해보자. 오늘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며 흡연 구역을 쫓는 그대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울컥하는가. 그 정도 피웠으면 됐다. 이제 그만 담배를 내려놓을 때이다.



10가지 금연 지침표

1.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동기 부여를 하라.
예) '금연하면 돈이 절약되고 건강해 진다' 등
2. 금연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반드시 담배를 끊도록 하라.
3.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을 시작했음을 알려 도움을 청하라.
동기 부여에 도움을 준다.
4.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조언에 귀 기울여라.
5. 금연클리닉 등 체계적인 금연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6. 금연에 완전히 성공하기 전까지는 술자리 등 흡연 장소에 가는 것은 피하도록 하라.
7. 금단 현상에 따른 초조, 불안감 등의 금단증상은 금연 후 1~3주 후에 많이 발생하며,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감소하게 된다.
8. 금단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니코틴껌, 니코틴 패치 등을 활용하라.
9. 물을 자주 마시고 섬유소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 등을 섭취하라.
10.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금연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중을 조절하라.

※자료 _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연 소식 아이와 함께 떠나는 이야기 속 여행

화사하게 핀 꽃, 재미있는 놀이동산 등 전국 각지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봄날. '우리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가장 기억에 남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부모에게 공연 몇 편을 추천한다. 공연은 아이의 오감과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부모와 아이의 공감대를 형성해준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화창한 봄날에는 아이와 공연장으로 가보자. 글 김현선



서울시무용단 <춤추는 허수아비>

한가로운 시골에서 텃밭을 지키려는 허수아비와 텃밭을 사들여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려는 부동산업자의 좌충우돌 이야기. 그 속에서 싹트는 허수아비의 사랑까지. 따뜻한 줄거리와 화려한 군무, 다양한 악기가 함께하는 어린이 무용극 <춤추는 허수아비>를 소개한다. 춤추는 허수아비는 주옥같은 창작무용극을 선보였던 서울시무용단의 공연. 주목할 것은 이번 장르가 '년버벌 퍼포먼스'라는 것이다. 년버벌 퍼포먼스는 표현과 몸짓, 음악 등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무대형식을 말한다. 거기에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한국창작무용의 엄숙함을 탈피하고 '비트 댄스 코미디(Beat Dance Comedy)'라는 유쾌한 장르를 보여준다고. 월드뮤직 그룹 '공명'의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선율도 기대를 더한다. <난타> <점프>를 이은 년버벌 퍼포먼스 <춤추는 허수아비>를 기대해보자.

만 5세 이상 | 70분 | 5월 1일~5월 5일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매: 세종문화회관 인포샵 (www.sejongpac.or.kr),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공연 문의: 서울시무용단 (02-399-1766)

유열 컴퍼니 <브레멘 음악대>

8년째를 맞이하는 장수 뮤지컬. 독일 브레멘 주정부와 세계각지에서 초청하는 뮤지컬. 화려한 타 이틀을 가진 <브레멘 음악대>가 올해 4월과 5월에도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선보인다. <브레멘 음악대>는 당나귀와 강아지, 고양이와 암탉이 음악대가 되기 위해 브레멘으로 떠나는 모험이야기. 이 이야기를 유열 컴퍼니에서 순수 창작 어린이 뮤지컬로 재탄생시켜 해마다 작품을 업그레이드한 지도 벌써 8년째다. 특히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특수효과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가득하고 전문연주자의 연주, 아크로바틱 배우의 역동적인 연기 또한 일품이라고. 남녀노소가 함께할 수 있는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의 즐거운 잔치에 함께하자.

24개월 이상 | 65분 | 4월 20일~5월 26일 |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
관람료: VIP석 50,000원, R석 40,000원, S석 30,000원
예매: 극장 용 (www.theateryong.or.kr),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공연 문의: 극장 용 (1544-5955)





국립국악관현악단 <땅속 두더지 두디>

화려한 무대가 부담스럽고, 앉아서 관람하는 공연이 지루하다면 <땅속 두더지 두디>를 보자. 무대가 객석으로 바뀌고 아이는 텅굴어도, 누워도 된다. 공연장 입구부터 땅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연출, 아이들과 교감하는 오케스트라연주는 살아숨쉬는 음악 자체를 선물한다. <땅속 두더지 두디>는 두디가 편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편지는 땅속에 싫증이 난 형 두두가 집을 나간 후 땅 위에서 보낸 편지다. 편지에 쓰인 땅 위는 마냥 아름다운 미지의 땅. 결국, 두디도 상상으로 꿈꿔왔던 땅 위를 찾아 나선다. 공연은 두더지의 밝은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들려준다. 땅 위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 소리, 아이가 듣기엔 신비롭고, 어른이 듣기엔 평온하다. 시원한 소리, 달콤한 소리 등 글로는 쓸 수 없는 소리도 음악으로 표현된다. 심지어 공연 후에는 어떤 교훈도 없다. 음악 감상만 하면 되는 것이다. 바람이 춤추고 흙이 이야기하는 봄날, 두디를 따라가 보자.

36개월 이상 | 50분 | 4월 28일~5월 12일 | 국립극장 KB국민은행 청소년극장
 관람료: 전석 20,000원 예매: 국립극장 (www.ntok.go.kr),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공연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6)

36개월 이상 | 70분 | 5월 4일 |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관람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5,000원
 첼체어 R석 30,000원, 첼체어 S석 20,000원
 예매: 색티켓 (www.sacket.co.kr),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티켓, YES24, 클럽발코니
 공연 문의: 코리안심포니 (02-523-6258)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키즈 콘서트>

음악은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자극해서 다양한 영역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학습능력이 높은 유아기에 음악을 매개로 활동을 연계하면 호기심이 왕성해진다. 이에 코리안 심포니가 36개월 이상이면 입장가능한 <키즈 콘서트>

를 연다. <키즈 콘서트>는 국내 최초 오케스트라와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복합 예술 공연. 2012년에 초연, 양코르 공연까지 마친 상태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자체 제작하여 우리나라만의 감성을 표현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수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지휘자 정인혁, 키즈 콘서트 초연과 양코르공연을 한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오윤주의 호흡도 기대되는 구성이다.

2013년 <키즈 콘서트>에 공연될 프로그램은 상상스의 '동물사육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다. '동물 사육제'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의 악기 표현을, '세헤라자데'에서는 공주를 구출하려는 용감한 신밧드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와 함께 감격의 콘서트를 즐길 좋은 기회.

KBS 수원아트홀 <구름빵>

동화 구름빵이 뮤지컬로 탄생했다. 단순히 앉아서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닌 배우고 체험하는 에듀테인먼트 뮤지컬이다. '구름빵'은 구름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먹으면 하늘을 날 수 있는 빵이다. 아이들은 귀여운 흥비, 흥시 남매와 함께 신기한 구름빵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우유, 이스트 등 실제 재료를 가지고 요리 과정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 요리하면서 '물은 졸졸졸, '실탕은 반짝반짝' 등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여기에 '괜찮아요, '간다 간다' 등 유아음악 전문가 김성균의 음악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니, 아이들은 실새 없이 따라부르기에 바쁘다.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요리시간! 따뜻하고 맛있는 <구름빵> 먹고 훨훨 날아 보는 건 어떨지.

만 24개월 이상 | 50분 | 2월 14일~5월 19일 | KBS 수원아트홀
 관람료: 전석 25,000원 예매: KBS 수원아트홀 (www.kbssuwonart.co.kr),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공연 문의: KBS 수원아트홀 (031-216-5201)



화랑 엔터테인먼트 <피터팬>

12살 웬디는 피터팬을 만나 네버랜드에 초대된다. 어렸을 적 누구나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피터팬. 아름다운 모습의 소년 피터팬이 뮤지컬 <피터팬>으로 부산에 찾아온다. 뮤지컬 <피터팬>의 특징은 무대가 화려하다는 것. 해적선, 웬디의 집 등 대형 세트를 이용한 연출은 동화책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특수조명과 레이저, 꽃가루도 판타지 뮤지컬의 백미를 느끼게 한다. 여기에 짜임새 있는 줄거리와 배우들의 라이브 실력 또한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 림스키 위주였던 기존의 아동극과 다르게 10여 곡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동심으로 떠나자. 환상의 네버랜드로!

24개월 이상 | 50분 | 5월 2일~5월 5일 |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R석 25,000원, S석 15,000원 예매: 화랑엔터테인먼트 (www.hwarangent.co.kr), 옥션 (www.auction.co.kr)
 공연 문의: 화랑 엔터테인먼트 (1644-5564)



중원 극회 <비보이와 함께하는 신데렐라>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b-boy가 뮤지컬을 선보인다. 화려한 안무로 꾸며질 뮤지컬은 바로 세계 명작 동화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계모에게서 구박을 받으며 자란다. 그러던 중 요정과 생쥐들의 도움으로 무도회에서 왕자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다. 신데렐라는 뮤지컬로 꾸며졌을 때 더 매력적인 동화다. 누더기 같은 옷에서 화려한 옷으로 변신하는 모습, 신기한 호박 마차와 유리구두 등 상상 속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음속 착한 사람은 행복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교훈도 준다. 여기에 비보잉은 매력을 극대화하는 요소다. 신나는 음악과 어우러지는 비보잉은 한 시도 눈을 땄 수 없다. 비보잉과 함께라면 아이들도 들썩들썩, 손뼉을 치며 어느새 뮤지컬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자,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이들에게 <비보이와 함께하는 신데렐라>를 선물해 주자. 환상적인 퍼포먼스에 어른들까지 흥미로운 뮤지컬이 될 것이다.

24개월 이상 | 60분 | 5월 4일~5월 5일 |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관람료: 전석 20,000원 예매: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중원 극회 (02-3474-4620) 공연 문의: 중원 극회 (02-3474-4620)



NEWS



04 베트남 MOU 체결식



05 올해 첫 청렴교육 실시



06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MOU 체결식

01 권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충해결을 위해 팔 걷어

권익위는 최근에 기업고충민원의 처리 강화를 위해 전담조사관을 3명에서 5명으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가급적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처리토록 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충민원 해결의 신속성 제고와 실질적 해소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09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권익위 청사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온-오프라인 기업민원 접수체계 구축으로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며, 위원회 내 기업민원 전담부서 및 전담자 배치, 민원부서별로 기업민원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기업고충민원의 처리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기업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한(60일) 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전체 40% 이상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 중점관리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하게 처리·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권익위는 영세소상공인·소기업의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굴과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인, 유관기관과도 연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창구 역할을 하고, 정보공유 및 기업고충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02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제도 민간기업과 공유

민간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줄이고, 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청렴정책을 민간기업과 공유하기로 했다.

지난 10여 년간 약 600여 공공기관의 소속직원들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관의 청렴 수준을 점수화하는 '청렴도평가'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지켜야 할 청렴기준을 제시한 '행동강령',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시 신분을 보호해주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운영 노하우가 공유된다.

우선, 지난 1월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66개 기업 중 3일 ㈜포스코 등 15개 기업의 윤리경영 부서장급을 대상(15명)으로 시범 실시하고,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정책을 민간부문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윤리경영 인식이 확산·정착되고 민간부문의 반부패에 대한 독자적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3 권익위, '13년 첫 행정심판 지역순회 구술청취 실시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위는 3월 28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했다. 이번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금년들어 첫 번째이다. 중앙행정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정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11년부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 실시할 예정이고, 중앙행정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번갈아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주재한다.

이번 경남지역 순회구술에는 중앙행정심위 관계자들이 참석하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남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0여 명이 출석해 대학교 수시모집 추가합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위,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딱한 처지 등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민들의 구술이 진행되었다. 구술 결과는 중앙행정심위 심리·의결 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04 권익위, 베트남 감찰원과 옴부즈만 업무협약(MOU) 체결

지난 3월 27일, 권익위는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베트남 감찰원과 양국 옴부즈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은 양국에 거주하는 해외거주 자국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향후 상대국 재외국민 전용 민원접수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권익구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권익위에서는 재외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대국에 모국어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베트남감찰원과도 이런 서비스의 제공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처리 관련 상대국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 워크숍·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이 내실있게 추진되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고충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5 권익위 청렴연수원 올해 첫 청렴교육 개시

권익위의 청렴전문교육기관인 청렴연수원에서 3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공직자들을 청렴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청렴강사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청렴교육인 '공직자 청렴강사 양성과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들 중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청렴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신청을 받아 이들이 청렴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강좌로, 해당교육 이수 후 기관 청렴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잘못된 공직 관행, 최근까지 빈발하는 공직자 비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내면화와 실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렴연수원의 올해 목표는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보다 청렴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의 방향을 정해 설계하고 교과목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06 권익위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익신고' 보호 MOU 체결

권익위는 지난 3월 26일 11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권익위 청사에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회장 박진수)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협약에 따라 앞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1,300여 개 회원사는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유독물관리자 교육 시 유독물 안전관리 위반 예방을 위한 일상적 감시 강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등이 포함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명 정도의 유독물관리자가 안전 분야 공익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숙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익위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자체적으로 공익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공익침해 예방을 위한 대외홍보와 정보교환 등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사전에 예방되고 산업현장의 안전이 확보되어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직접 이동신문고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앞으로도 기대해도 되겠죠? 또 권익위에서 외국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에는 어떤 기관이 우리나라 권익위의 역할을 하는지, 사례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도 보충하면 좋겠네요. 다음 호도 기대합니다.

김휘곤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콩나물고기는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지만 체험해 보지 않은 학부모들은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직접 방문해 주시는 모습에서 앞으로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의 권익도 다루어주세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페이지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읽어버리고 나면 다다음달을 기다려야 하니 너무 아쉽네요.

최지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건강 다이어리’에서 나트륨에 관한 이야기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더군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식사법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는 독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진코너가 신설되면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뛰어 주세요!

박종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조사관의 현장이야기가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서민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호에는 퇴직자의 퇴직금 신청 방법과 거절 방법에 대항할 수 있는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사례를 들어가며 소개한다면, 퇴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역사 속의 권익’을 보며 ‘청렴’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뇌물죄와 반인륜적 범죄는 처리되어야 하죠. 조상의 숨겨진 역사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또 지금도 청렴하지 않은 국가기관이 많습니다. 저도 직접 민원을 넣은 적이 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발생 시 객관적인 제3자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유민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ACRC QUIZ

1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조선시대 3대 임금인 태종이 대문 밖 문루 위에 북을 매달고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고자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언제일까요?

- 1 2월 14일 2 3월 14일
- 3 2월 27일 4 4월 5일

2 정부대표민원전화로 국민이 이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 1 101 2 110
- 3 011 4 010

3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옹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부패의 극에 달한 조선 후기 지방의 사회 상태와 정치의 실재를 민생 문제 및 수령 분무와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이 책은 무엇일까요?

- 1 여유당집 2 흠흠신서
- 3 다산시문집 4 목민심서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5월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110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 담합 행위 등